

## “바울의 마지막 교훈”

골4:2-6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진리로 채움 받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 영혼은 병들 수 밖에 없고 정신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가 쓰여진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감옥이 있을 때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던 에바브로가 로마감옥에 찾아와서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즉 미신과 유대교의 율법규정을 섞어 놓은 것과 그리스 철학과 천사 숭배도 조금씩 가미된 것들이 교회로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 1. 진리에 서기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오면 이 가르침이 핏줄을 타고 몸 전체로 퍼집니다. 기독교는 어떠한 사람의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행위의 높은 수준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바로 예수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복과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졌습니다. 그 복과 능력은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사상을 배우거나 신비로운 체험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단들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무시하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면에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 현실을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현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이상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 2 말씀과 기도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할까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가기에 별로 불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한계에 부딪치게 될 때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참된 삶을 살수 있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 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 잡은 마귀와 대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인용해 마귀를 대적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것들을 사용해 마귀를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뿐입니다. 히브리서 4 장 12~13 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특히 전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골 4:3)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교회의 최고 축복은 영적인 결실을 많이 맺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문제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시대입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 3. 세월을 아낌

“(골 4:5)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는 천국백성이지만 이 세상에도 속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에 때문에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의 쓸데 없는 일만 실컷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리면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취생몽사합니다. 술 취해서 살다가 꿈같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삶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기독교계의 지도자 존 맥스웰(J. Maxwell)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비전이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재만 보고 지금만 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목표가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했는데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지능지수, 학력, 성장배경 등이 비슷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7%는 목표가 없고, 60%는 목표가 희미하며, 10%는 단기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3%의 사람만이 분명한 장기 목표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장기목표를 갖고 있던 3%는 25년 후 사회 각계의 최고 인사가 되었고, 단기 목표를 갖고 있던 10%는 사회의 중상층 인사가 되었습니다. 목표가 희미했던 60%는 중하위 층이 되고, 목표가 없었던 27%는 모두 최하위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이끄는 삶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처럼 큰 차이가 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표도 세상 목표에서 믿음으로 목표로 바꾸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빠져서 혹은 출세에 눈이 어두워져서 믿음이 전혀 자라지 못할 수 있습니다.

#### 4. 말의 중요성

**“(골 4:6)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루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어떤 사람이 쓸데없는 말을 하면 ‘저 사람 참 싱겁다’고 합니다. ‘소금으로 고루게 함같이 하라’는 것은 말 할 때 싱겁게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말고 필수적인 말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싱겁고 허탄한 대화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하지 않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잠 25:11)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니라”** 그리고 운명은 그가 일생 동안 들은 말들에 좌우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장과정에서 무슨 말을 많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자기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말은 세 가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들은 말이 뇌세포에 새겨지는 각인력입니다. 두 번째는 새겨진 말이 행동화되는 견인력입니다. 세 번째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력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선해지고 남도 선하게 하지만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악해지고 남도 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을 바꿀 때는 먼저 말을 바꾸라고 합니다. 말을 바꾸어야만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불을 태울까요?산불도 작은 성냥개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작은 불이 나중에는 산과 마을 불태워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말은 잘 사용할 때는 좋지만 잘못 사용하면 마치 별 것 아닌 성냥불이 온 집과 산 전체를 불태워 버리듯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악한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영혼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결국 온몸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쁜 말의 영향은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불이 붙은 바퀴처럼 여러 차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언어는 실제로 사람의 생체 에너지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체 에너지가 높아지면 어떠한 암세포도 증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생명의 언어로 건강의 축복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한번도 살아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를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알파와 오메가 즉 시작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 만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분명한 삶의 목적 안에 말씀과 기도로 세월을 아끼며, 생명의 언어습관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성도들이 사수해야 할 구원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중심으로 각자의 언어로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3. 세월을 아끼는 삶이란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당신과 자녀들이 붙잡고 있는 분명한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4. 일상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생명의 언어 습관은 무엇인지 나누어 주십시오.
5. 4월 20일에 예정된 새생명축제를 위한 VIP선정을 위해 합심기도하고, 명단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